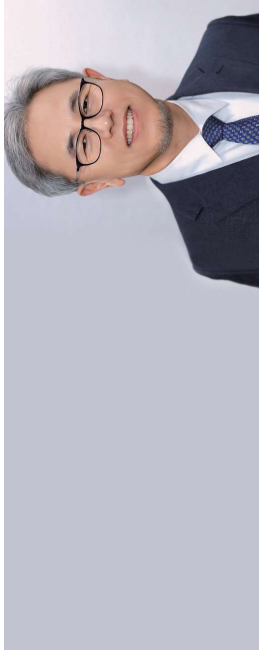


세션 2

청년층 이탈 방지 대책과 부흥 전략



양현교 교수
충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1. 들어가기는 말

한국교회의 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교회 내 인구 구성 피라미드의 모양이 역삼각형이 되고 있다. 즉, 교회마다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의 사회적 현상이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단순한 이유는 첫째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교회 안에 머물던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상황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탈을 방지하는 방

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탈 방식을 넘어서서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하게 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2. 청년의 정의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이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관점에서 내려질 수 있지만, 대체로 연령에 의해 청년의 의미가 정의된다. 대한민국의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이다.¹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² 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청년을 조금씩 다른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³ 이러한 모든 규정을 포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20~30대에 도달한 모든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 구분은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의 “코호트”(Cohort) 개념을 사용한다. 코호트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한 기간에 중요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속성을 공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⁴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호트 개념을 사용할 때, “청년”은 다른 많은 용어로 표현된다. “청춘”, “젊은 세대” 그리고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노마드”, “N세대”, “사이버 세대”, “스마트폰 세대” 등이다. 결국, 청년은 기성 세대의 눈으로 볼 때 신세대, 혹은 젊은 세대로 통칭할 수 있다. 이러한 호칭들이 협의하고 있는 바를 고려한다면, 청년세대는 그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생산적인 세대로 할 수 있으며, 청년세대가 허약할 경우 사회 전체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청년세대”이란 용어와 “MZ세대”라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 동의어로 여기어 혼용하

-
- 1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의하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단 참조.
 - 3 「중소기업 인턴지원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 인턴지원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청년은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참조).
 - 4 최석범,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제32호 (2022. 5): 3.

라고 한다. 왜냐하면, “청년”은 연령 차원에서 접근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MZ세대”는 신조어로써 청년과 같은 연령대의 사회적 특징과 정체성 차원에서 접근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성격상 연령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접근이 더 타당하다 여겨 “청년”과 “MZ세대”를 혼용하여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Z세대를 아우르는 신조어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후반 출생자들을 의미하며, Z세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 출생까지를 가리킨다. 결국, MZ세대는 20~30대 청년층을 포사하는 사회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⁵

3.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상황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가혹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적 과제들의 수행은 고사하고, 본인의 과제들 역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⁶에 놓여 있다. 청년을 상징하는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열정의 모습보다는 단지 생존에 매몰되어 있음이 오늘날의 청년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이 “N포세대”라는 말이다. N포세대란 의미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의미로서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 여기에다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한 “칠포세대”로 불린다. 나아가 인간관계, 희망, 꿈까지도 포기해 버린 “완포세대” 혹은 “전포세대”로 불리는 세대도 있다.⁷ 이 모든 것이 청년세대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다양한 실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취업, 주거, 빈곤, 결혼, 출산 등의 실존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은 청년세대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청년이 정신적으로 의욕 상실, 우울증, 불안, 걱정, 생존 부담 등에 빠져

있다. 그 결과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은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Extreme Social Withdrawal, ESW)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각종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약물 의존이나 자살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음도 사실이다.⁸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흔히 말하는 가슴이 뛰고 꿈을 먹고 사는 “청춘예찬”의 시기만은 아니다.⁹ 대한민국에서의 청년 시절은 여러 측면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삶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¹⁰이다.

4. 청년(MZ세대)의 특징

모든 세대가 그러하듯이 MZ세대 역시 동일한 문화적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에 따라 비슷한 행동 양식과 세계관을 지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같은 시대의 문화적 경험과 이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은 MZ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MZ세대는 기성세대가 갖지 않은, 아니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탈 기독교 혹은 탈 교회 현상이라는 시대사조와 맞물려 그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대사조와 MZ세대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므로 이 시대 MZ세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즉, 시대사조는 MZ세대를 양육하고 있고 이 양육을 받은 MZ세대는 또 다른 시대사조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청년세대(MZ세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들이 “디지털네이티브”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8 신발상, 표정원, 김하은, 「[한국] 청년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깨내다」, 「스텐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https://ssikorea.org/challenge/?bnode=view&idx=28006206>.
9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제30집 (2014): 13.
10 함영주, 이현철,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제66집 (2021. 6): 213.

텔 네이티브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각종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마치 원어민(Native Speaker)과 같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¹¹⁾ 이 용어는 그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자랐음을 의미한다.¹²⁾ 이들은 혁명적인 정보통신의 기술 혁명 속에 있는 세대이다. 소위 말해 제4차 산업 혁명 아래서 태어나 자란 세대이다. 이러한 기술 혁명은 MZ세대의 의사소통 방식, 정보 습득, 학습 방법, 심지어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이 MZ세대에게 유익함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이들에게 빠른 정보 접근과 학습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정보 홍수,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소위 말해 “디지털 이민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민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런데 혁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로 전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디지털 세계로 옮겨온 사람들을 말한다.¹³⁾ 프렌스키는 베이비 붐 세대나 X세대가 디지털 이민자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이민자는 과거의 편지와 전통적인 소통 수단으로서 소통을 디지털 안에서 구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 필자 역시 전형적인 디지털 이민자에 속한다.

2) 개인주의에 기초한 삶

청년세대(MZ세대)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 그들은 각 개인의 가치관을 중히 여긴다. 소위 말해 개인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만족의 폐선과 자기 취향의 문화에 깊임이 고 당당하다. 자기 취향에 따른 자기만의 멋과 유행을 추구한다. 이 세대는 전통적인 직업 경로나 생활양식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모색한다. MZ세대는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 측면에서도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 재미, 원하는 목표에 따라 한 시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MZ세대가 기존의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관계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취향 공동체”¹⁴⁾를 추구한다. 따라서 MZ세대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사실 개인주의는 일면에 있어 다양성이나 포용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다른 개인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바로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3) 권위주의 거부

청년세대(M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전 세대가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던 권위에 대한 존중 또는 권위에 근거한 수직적 위계 질서와 조직 구조를 거부한다. 그들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선호하고, 수평적 소통 방법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조직을 원한다. 때문에 그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기성세대만큼 크지 않다. 그들은 한 조직에 오래 머물고자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조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개인적인 나를 중시하는 청년의 입장은 기성세대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¹⁵⁾

4) 불안

청년세대(MZ세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의 청년세대는 정서적으로 불안함 속에 사는 세대라는 특성이 있다.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각종 양극화 현상 속에서 청년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안해한다. 부모 세대보다 훨씬 유복하게 자랐고 많이 배웠음에도 부모 세대의 번영과 안정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의기소침함이 청년들을 지배한다. 2000년 이후 청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201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사망자 가운데 42.7%가 자살로 목숨을 끊었

14 최성범,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5.

15 장배철, 이수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 「ACTS 신학저널」 제48집 (2021): 168.

다.¹⁶ 2023년 <문화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비록 교회 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청년들의 37%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26%가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56%가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떠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¹⁷

5) 소비 및 문화 트렌드에 민감

청년세대(MZ세대)는 소비 및 문화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이다.¹⁸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이미 언급한 개인의 취향을 중시한다는 점과 연결된 특징이다. 최선훈은 청년을 주제로 삼은 그의 논문에서 “MZ세대는 한국 사회 최초의 취향과 소비의 세대다”¹⁹라고 평가했다. MZ세대에게 있어서 소비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비는 자신의 취향,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며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소비는 사회적 정의 구현과도 연결되고 환경 보호와도 관련된다. 소비는 가치관의 표현이며, 사회적 트렌드에 참여하는 것이다. MZ세대의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그들은 이미지, 비디오, 이모티콘 등 비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함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유행시키고 즐긴다.

6) 긍정성 추구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긍정함이다. 임운서와 안윤정은 그들의 공동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긍정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은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세대의 적극적 주도로 주목 받아왔다”²⁰라고 말했다. MZ세대는 긍정함과 일관성이 적용되는 세상을 꿈꾼다.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가를 바란다.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 및 자산 형성의 절차 등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다. 그렇기에 그들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개방적인 사회와 조직을 원한다. 혐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공정한 혜택을 보는, 소위 말해 기물어건 운동장을 MZ세대는 거부한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에 민감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결론적으로 청년세대(MZ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로, 그들의 의사소통방식과 가치관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세대는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재해석하고, 기술의 진보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길을 개척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사회의 중심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불안의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행동과 태도는 미래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청년세대의 특성이 교회 안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중요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교회 안의 청년과 그들의 이탈 현황

주지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상에서 묘사한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교회 안에 MZ세대가 존재하고 그들 역시 동일한 MZ세대의 특징과 애환을 공유한 청년들이 다. 교회 안의 청년들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안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교회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답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청년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겪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부흥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이다. 기성세대들이 공히 가진 경계 성장이라는 위대한 스토리가 없으며 세대가 놀라워했던 한국교회 성장 스토리가 없는 세대이

¹⁶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12.

¹⁷ 문화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탐버즈」, 226호 (2024. 1. 30): 1-10.

¹⁸ 배광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MZ세대 읽기”, 『새가침』 (2022. 6.): 78.

¹⁹ 최선훈,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13.

²⁰ 임운서, 안윤정, “청년세대의 한국사회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개인의 과정과 공동체적 대안의 경계에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3호 (2022): 78.

다. 오히려 온갖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와 교회 지도자의 일탈 이야기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백광훈이 말한바, “교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세대”²¹이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이 기성세대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교회 이탈 역시 쉬울 수밖에 없는 세대이다.

한국교회의 성도 수가 축소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위 부흥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은 멈췄고, 짧은 정체기를 거쳐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쇠퇴기를 거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 비율이 1998년 인구 대비 20.7%이었고 2012년 22.55%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16.6%로 급격히 감소했다.²²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최근 10년 사이에(2012~2023) 6%가 감소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2030 개신교인 비율이 2017년 20%에서 2022년 15%로 줄었다. 특히 20대는 5년 사이에 21%에서 11%로 쪼그라들었다.²³

한국교회 교인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는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무종교화 되는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기독교가 성숙기에 들어간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학자 화이트(James Emery White)는 그의 저서 『종교없음』(The Rise of the Nones)에서 “종교없음”이 미국 사회에서 가볼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 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²⁴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역시 무종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3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62.9%이다. 2004년에 43.0%에 비하면 무려 20%가 증가했다. 1998년 이래 앞서던 종교인 비율은 2017년 무종교인에 역전됐고,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며 종교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를 보인다.²⁵ 이러한 종교이탈 현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한국리서치>에서 실행한 조사에 의하면 18~29세의 69%가 무종교자이다.²⁶

21 백광훈, “우리 시대, 우리교회, MZ세대 일기”, 81.

22 목회데이터연구소, “[종교인구분포] 한국사회, 가짜는 속도로 탈종교화!”, 『남버즈』 224호 (2024. 1. 16): 5.

23 신은경, “2030이 모이는 교회엔 공감, 혼란, 자율이 숨 쉰다”, 『국민일보』 (2023. 8.1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6482>.

24 James Emery White, *The Rise of the Nones: 감일우 역, “종교없음”* (서울: 베가북스, 2014) 31.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종교별인구] 개신교 인구 비율, 최근 10년 사이 6% 하락”, 4.

26 이동환,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여론 속의 여론』, (2024. 12. 11) <https://hrcopinion.co.kr/archives/31599>.

하지만 한국교회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를 종교 없음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원인은 한국교회 스스로의 정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셀 수 없는 불미스럽고 교회당 지 못한 일들로 인해 교회의 권위와 평판이 악화하였고, 이러한 정책결은 교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을 가속했다. 열린 데 닫힌 격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교회 이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처럼 교회 이탈 현상은 한국교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김은혜는 “청년세대들이 침묵 속에서 교회의 꿈을 떠나고 있다”²⁷라고 지적한다. 조용하게 그러나 급진적이고 급속하게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 19세 이상 20~30대 비율이 2012년 40%에서 2023년 20%로 줄어서 교회 내 20~30대 비율이 10년 여간에 절반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일반 사회의 고령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2023년 일반 사회의 60~70대의 비율이 32%임에 반해 교회의 동 연령대 비율은 52%이다.

청년 가나안 성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각종 통계가 청년 가나안 성도들의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2년 8월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대학생 중 42%가 가나안 성도로 밝혀졌다.²⁸ 2년 후인 2024년 11월 동일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기독교 청년 44%가 출석 교회가 없는 가나안 성도로 밝혀졌다.²⁹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진병철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세대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최근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힘을 잃는 것도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청년세대는 종종 교회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비유한다.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허리, 사회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³⁰

27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9.

28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남버즈』 180호 (2023. 2. 21): 2.

29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인식: 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 『남버즈』 279호 (2025. 03. 18): 2.

30 진병철, 이수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 142.

6. 청년들의 교회 이탈 원인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려 한다. 그런데 청년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1년, 「기독교 사상」에 서는 특집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특집에서 이상화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³¹ 또한 이상화는 2007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³²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교회이탈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짐 데이비스(Jim Davis)와 그의 동료들의 2023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최근 25년간 미국 교회에서 약 4천만명이 교회를 떠났으며, 그 중에서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의 교회 이탈율이 가장 높다. 연구자들은 말하기를 “고등학교 졸업 후 4년(대개 대학교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하거나 직장에 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인 청년시기에 교회를 가장 많이 이탈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³ 따라서 청년시기에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시기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을 다음 세대로 규정할 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 세대는 언제나 기존 세대의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사를 보건대, 기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었던 경우는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단순한 이유인데, 기존 세대의 그릇으로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항상 그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했다. 구도자 교회, 이머징 교회, 선교적 교회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교회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기존 세대 교회에서 이탈하는 새로운 세대를 붙잡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교회 형태들이었다.

31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기독교 사상』 (2001. 7): 14-23.
32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33 Jim Davis, Michele Graham, Ryan Burge, *The Great Dechurching*, 『탈기독교시대 교회: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떻게 다시 오게 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23), 193-195.

그렇기에 교회사를 보건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없었다. 반드시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를 거쳐 그 수명을 다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생명체이다. 그 수명의 연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생명 주기 이론”(Congregational Life Cycle Theory)³⁴으로 확인된다. 베이비 붐(Baby Boomer) 세대를 거당한 대표적인 구도자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있는 다음 세대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는 생략한다. 당연히 쇠퇴기에 들어섰고 베이비 붐 세대가 늙어감에 따라 노쇠한 교회가 되고 그들이 소멸하는 미래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교회가 이탈하는 청년세대를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세대들의 뼈를 깎는 변화가 수용되어야 한다. 기존 세대가 가진 교회 구조를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를 붙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본당을 다음 세대에 내주는 교회”라는 상징적 표현을 써서 기존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붙잡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발상 전환이 교회 내의 기존 세대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결국, 청년세대를 붙잡는 교회는 적당히 변화를 시도하는 기존 세대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청년세대에게 맞는 새로운 교회의 출현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 세대가 기성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릇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패러다임 전환과 기독교 포기 그리고 자기희생과 양보를 통해 청년세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정착, 교역자의 리더십, 혹은 적절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청년세대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다. 청년세대를 붙잡는 방안은 제도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마음과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려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이다.

1)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

청년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청년들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실망 때문이

34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혁: 신학과 실천과 방향』 (서울: 솔로몬, 2019), 67-75.

다. 청년세대들은 성장기에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많은 뉴스를 일상으로 접하며 성장하였다. 한국교회의 부흥기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의 부정적 모습은 발달한 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디지털 세대인 MZ세대들은 그 소식을 쉽게 접하였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 속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한 세대는 청년이 되어 교회의 부정적 면에 쉽게 등을 돌려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리서치 기관의 보고에 잘 반영되어 있다. ARCC 연구소(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의 전병철 소장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목회자 문제”로 이야기한다. 청년들은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다고 응답했다. 또한, 설교 중 부적절한 발언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인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³⁵ 혐영주 역시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목회자의 안행 불일치, 설교 중 부적절한 발언, 평상시 상치가 되는 말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³⁶ 지난 2023년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전국의 만 19세~34세 교회 출석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교회를 이탈한 가장 큰 이유는 36%를 차지한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이었다.³⁷ 목사의 부도덕성과 교회의 비윤리적 스캔들 등은 청년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2) 권위주의와 배타주의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청년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의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분위기이다. 쉽게 말하면, 청년들은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 기성세대(베이비 부머와 X세대)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의 분위기는 권위주의와 배타주의의 분위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성세대는 유교 전통과 군부독재와 국가 주도 경제 번영 시대에 자랐다. 당연히 권위주의에 익숙하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보수 신학과 맞물려 교회를 권위주의 문화 속에 가두었다. 보수 신앙이라는 기치 아래 교회 내에서 문제

제기보다는 침묵을, 의심보다는 순종을 강요하고 그것이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여기도록 했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열린 마음, 관용, 존중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 당연히 교회 문화에 그들이 적응할 수 없다. 그들은 교회를 “교회 내에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³⁸ 문제 제기 자체가 신앙심이 없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의 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교회의 답변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목사님도 실수하지 않으신다”³⁹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청년세대가 적응할 수는 없다.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교회의 배타적인 문화 또한 청년세대에게는 문제가 된다. 당연히 교회는 진리 자체의 배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리 수호에 있어서 교회는 당연히 배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에 있어서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배타적으로, 진리를 담는 그릇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성교회들이 진리를 담는 그릇에 있어서까지도 배타적이다. 다른 그릇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들은 교회를 질문과 의심이 허용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창의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청년들의 눈에 교회는 비타협적이 곳일 뿐이다. 오로지 기성세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강요와 이မ်, 그리고 강압적인 교리가 선포되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3) 헌신 강요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그들 존재에 대한 허탈함이다. 즉, 교회 내에서 그들의 존재가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교회 일을 수행하는 수단과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허탈함이다. 당연히 청년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청년들은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위 말해 “헌신 당하는 청년들”이 되고 있다. 이처럼

³⁵ 이주연, 이준영,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CTS 뉴스」, (2024.12.17.), <https://www.cts.tv/news/view?cate=all&id=324254>.
³⁶ 이은혜,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뉴스앤조이」, (2021.04.1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99>.
³⁷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9.

³⁸ 최승현, “교회에서 인식을 얻고 싶다”라는 청년들 in EYCK · NCCK청년위원회 편,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인, 2017), 55.
³⁹ 남기평, “솔라 에페루스(Sola Ephesus: 오직 청년으로만)” in EYCK · NCCK청년위원회 편,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인, 2017), 87.

럼 헌신을 강요당하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뽀뽀이” “소모품” 혹은 “마당쇠” 등의 지조적 표현을 들어 자신들의 교회 내 정체성을 규정한다. 결국, 일하다 지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조세형은 “청년들은 목회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⁴⁰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 안 청년들에게 교회는 안식을 허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치분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일이 봉사에 매여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날이 되도록, 봉사에 빠져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청년 역시 목양의 대상임을 인지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4)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불만족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종교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한 좋은 조건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청년들은 영적인 면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한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청년들의 성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병철과 이수인은 그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왜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청년 사역자들의 응답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청년들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혹은 믿음에 대해 이해되거나 설득되지 못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⁴¹

이처럼 신앙의 본질적 측면이 채워지지 않아 청년세대가 교회를 이탈함에 대하여 주석현은 그의 글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의 숙제”에서 “청년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성세대의 선입견이었던 같다”⁴²라고 선언한다. 그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청년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자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더 알아가기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세대이다.⁴³

실제로 청년들은 영적인 것에 목마르다. 청년들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고 바라고 있다. “청년들은 오히려 덮어놓고 믿는 믿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이면 정확히, 제대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⁴⁴ 따라서 교회가 줄 수 있는 본질적인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예배와 성례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⁵ 이러한 영적인 만족이 없음으로 인해서 청년세대가 교회를 이탈한다고 하겠다.

5) 개인적 상황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삶이 곤고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청년 시대에 직면한 삶의 문제가 많고 크다. 청년 빈곤은 심각하며, 결혼과 장래와 관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 역시 우려스럽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청년 56%가 빈곤하며 35%가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고 한다.⁴⁶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업, 취업, 연애 등의 다양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청년들은 불안하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워한다.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지

나지 않았으며,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청년이 37%로 나타났다.⁴⁷ 청년들은 그러한 무게감으로

43 주석현,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111.

44 주석현,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110.

45 주석현,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110.

46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10.

47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10.

살기에 교회 생활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청년 100명 중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7명 정도일 뿐이다.⁴⁸

교회는 교회 안의 실존적 불안의 삶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에게 영적인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실존적 답도 제공함으로써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야만 한다. 신앙이 실존적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실존적 삶을 이유로 신앙이 외해지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7. 청년세대 이탈 방지책

지금까지 청년세대가 왜 교회를 이탈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탈 방식에 관하여 논할 차례이다. 청년은 교회의 현재이며 미래이다. 교회에서 청년세대가 약화되는 것은 현재의 교회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교회를 불확실하게 만들들은 명약관화하다.⁴⁹ 기성세대는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을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등지는 자들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조용하지만 급속하게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세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교회는 이탈하는 MZ세대를 붙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1) 청년세대 이해

청년세대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기성세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관하여 공부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 즉 청년세대들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⁵⁰ 그들을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문화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위대한 세

대의 눈으로 볼 때 청년세대는 어쩌면 나약한 세대로 비칠 수 있다. 매사에 질문과 의심을 제기하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의 눈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말만 많은 세대로 비칠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의 청년세대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서로 다름일 뿐이지 기성세대가 세대가 옳고 MZ세대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설희의 MZ세대 분석은 MZ세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최설희는 그녀의 글에서 말하기를, MZ세대는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반짝이는 세상 속에서, 어둡고 암울한 세대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기성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는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계급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MZ세대들은 그러한 이동이 불가능하다. MZ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력으로 고학력, 문화 선진국, 경제적 선진국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는 이미 공고화되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비중이 커졌다.”⁵¹ 따라서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세대라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이러한 청년세대를 이해하고 기성세대와 다른 점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접근하여 그 다름에 따른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익숙함을 포기하는 회생의 결단이 필요하다.⁵² 청년세대를 절었다 여기에 억박지르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함이 필요하다. 교회가 청년세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할 때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청년들과의 소통과 공감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청년들과의 소통이며 또한 공감이다. 이 미 진솔한 바와 같이 청년은 불안의 세대이며 청년으로 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러한 청년들과 소통이 중요하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야 한다. 교회에서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목양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위로의 대상이다. 교회는

51 최설희,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9.

52 주석원,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112.

48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10.

49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 13.

50 주석원,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106.

청년들을 교회 일을 위한 소모품이나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웰빙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⁵³ 그들은 교회의 잡다한 일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같이 공통받고 상처받고 있다는 공감과 연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청년세대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 청년들과의 소통을 회복한 공감적 연대는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⁵⁴

흔히 교회마다 청년세대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정작 청년세대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다면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청년을 위한 교회의 강조는 말뿐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청년에 관하여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먼저 청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청년세대는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해와 소통이 있는 그곳에 청년이 머문다.

3) 열린 교회 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 내의 권위주의 구조는 청년 이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해서 교회는 열린 교회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청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교회의 열린 구조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교회가 청년들을 하나의 동등한 객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년 역시 당당한 발언권을 가진 교회의 주체이다. 교회는 청년들의 의견을 기성세대의 의견과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 청년세대의 의견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그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3 전병철, 이수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 167.

54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16.

교회가 청년들을 어리게만 보아 못 미더워한다거나 교회 생활 경험 부족을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목회 경험에 비추보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세상에서는 출석하는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하는데, 교회만 오면 부모 세대들에 의해 뭇 모르는 아이 취급을 받음이었다. 청년들에게 동등한 발언권과 참여권이 주어져야 한다. 교회의 재정 운영, 기획과 발언권이 여전히 기성세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에 청년들은 머물지 않는다. 청년세대는 매우 독특한 세대이다.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교회가 발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청년세대 중에서 장로로 임직되는 것 또한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한 열린 교회 구조가 되는 데 한 방법일 것이다.

4) 청년 사역자들의 전문성 강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호 4:6)라고 한탄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고 본다. 청년이 교회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년들을 위한 전문 교역자의 필요성이다. MZ 세대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MZ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교회 구조상 청년세대를 위한 전문 교역자 양성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들이 아직 신학생들로서 대부분 파트타임 교역자이며, 또한 장년 목회자로 가기 위한 과정의 “철새목회자”이기 때문이다. 바쁘고, 자주 교체되고, 교회 당국자와 청년들 사이에 긴 목회자가 청년목회자이다. 청년 사역은 배고픈 사역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역이고, 다루기 까다로운 대상의 목회라고 인식한다. 청년사역 목회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진대, 그들의 양육을 받는 청년들이 교회의 신실한 회원으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다.

청년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목회자가 필요하다. 청년 사역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이 총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전문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⁵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회가 청년 사역자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55 최운원, 최정성,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도서출판 에함, 2012), 20, 25.

해야만 한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청년 사업자가 삶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한 방안이다.

5) 신앙의 본질 제고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말해 교회와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조직과 프로그램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살아 있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상실한다고 하겠다. 청년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가? 그리고 이탈하는 그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전술한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답인가? 아니라고 본다. 비록 그러한 조건 충족이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한 명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세대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 본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MZ세대는 영적이다. 더군다나 이 세대는 불안의 세대이다. 따라서 이 세대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인의 MZ세대는 새로운 것과 변화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성장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교회가 청년세대의 그 신앙의 본질 추구를 돕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김은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청년세대의 갈망에 시급하게 그리고 간강하게 응답하지 않을 때, 청년들은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인의 청년들은 교회 사역의 인적 자원으로 지쳐가거나, 아니면 개인적 신앙에 집착함으로 점점 사회와 고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⁶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승부를 보려 하기에 청년 이탈을 막

지 못한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주는 곳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다. 청년세대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소유하고 즐긴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 한들 세상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이탈의 문제는 제도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문제이다. 교회는 성경의 본질을 파헤치되 그 것을 어떻게 현실과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⁵⁷

6) 기성세대의 신앙 관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인의 많은 청년이 교회를 이탈했으며 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근거하면, 많은 교회 이탈 의향을 가진 청년들이 실제로는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족들, 특별히 부모들의 신앙과 부모들의 만류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년 이탈 방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준다. 그것은 가정, 특별히 부모의 신실한 신앙과 교회 생활은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교회 이탈 방지를 위한 간접적이면서도 그러나 효과적인 방안은 기성세대의 교회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기성세대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끈끈한 관계와 화해는 청년 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신앙을 주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인기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기성세대에게 대한 신앙교육은 그들의 자녀세대인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57 임보혁, “교회, 시니어 청년세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민일보」 (2024. 12. 2) <https://www.kmb.co.kr/article/view.asp?arcid=0020817755>.

56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10.

8. 나가는 말

청년 이탈은 현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회의 역사를 보건대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세대에 직면했고 그 세대를 붙잡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사실 새로운 세대에 직면하는 상황은 세상사에서 계속된 현상이었고, 기성세대는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당황하였다. 교회 역시 언제나 새로운 세대에 직면한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세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연구자는 지금까지 여러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한번 처음 주장으로 돌아가려 한다. 청년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다.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들이 활동할 장을 그들 방법으로 펼쳐주는 것이야말로 청년 이탈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청년들은 수단이 아니다. 목양받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만저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태,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배타주의, 청년을 도구화하는 헌신 강요, 신앙의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 그리고 청년이 직면한 개인적인 열악한 환경 등이 청년의 교회 이탈을 가속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청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구조를 청년 중심의 열린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전문 사역자 양성 and 정착, 그리고 그들의 장기목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청년들의 신앙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목양을 생각해야만 한다.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그 영향이 자녀인 청년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데이빗 키넴(David Kinnaman)의 말을 인용함으로 본 연구를 마치려 한다.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다.”⁵⁸ 그렇다. 청년세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을 때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번역본

Davis, Jim, Graham, Michele & Burge, Ryan. *The Great Dechurching*: 탈기독교시대 교회: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떻게 다시 오게 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23.

Kinnaman, David. *You Lost Me*. 이선숙 역.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White, James Emery. *The Rise of the Nones*. 김일우 역. 『종교없음』. 서울: 베가북스, 2014.

단행본

(주)공감만세. 『116개 키워드로 살펴본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주요 의제』. 서울: 서울연구원, 2020.

김효정.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MZ 키워드 33』. 서울: 넥서스BIZ, 2022.

남기평. “솔라 에페푸스(Sola Ephebus: 오직 청년으로만)” in EYCK · NCCK청년위원회 편.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연, 2017.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척: 신학과 실천과 방향』. 서울: 솔로몬, 2019.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최승현.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싶다는 청년들” in EYCK · NCCK청년위원회 편.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서울: 동연, 2017.

최운원. 최정성.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도서출판 예향, 2012.

58 David Kinnaman, *You Lost Me*: 이선숙 역,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279.

Prensky, Marc.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 9, no. 5 (2001): 1-6.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 윤리』 제30집 (2014): 7-36.

백광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MZ세대 읽기". 『새가정』 (2022. 6.): 78-80.

이경화. "MZ 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미래기술융합논문지』 vol. 3, no. 1 (2024): 59-64.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기독교 사상』 (2001. 7): 14-23.

임운서, 안운정. "청년세대의 한국 사회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탐구: 개인의 좌절과 공동체적 대인의 경계에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3호(2022): 77-103.

전병철, 이수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이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연구". 『ACTS 신학 저널』 제48집 (2021): 138-172.

조세영. "청년 사역이 어렵고 힘든 이유". 『기독교 사상』 (2001.7): 36-46.

주민재. "디지털 네이티브'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고찰: 「모바일 네이티브' 개념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집 (2022): 213-253.

주석현. "교회가 풀어야 할 청년세대라는 숙제". 『성결교회와 신학』 제48권 (2022): 101-112.

최셋별.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제32호 (2022. 5): 1-15.

함영주, 이현철.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용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제65집 (2021. 6.): 209-241.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넘버즈』 180호 (2023. 2. 21): 1-13.

_____.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넘버즈』 226호 (2024. 1. 30): 1-10.

_____. "[종교인구분포] 한국사회, 기파른 속도로 탈종교화!". 『넘버즈』 224호 (2024. 1. 16): 1-18.

_____. "한국인의 종교 인식: 기독교인 vs. 비기독교인". 『넘버즈』 279호 (2025. 03. 18): 1-10.

신현상, 표정완, 김하은. "[한국] 청년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꺼내다". 『스텐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https://ssirkorea.org/challenge/?bmode=view&idx=28008206>.

이동환.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여론 속의 여론』 (2024. 12. 11) <https://hrcopinon.co.kr/archives/31599>.

신은정. "2030이 모이는 교회엔 공감, 혼련, 자율이 숨 쉰다". 『국민일보』 (2023. 8.19) <https://www.km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6482>.

이은혜.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뉴스앤조이』 (2021.04.1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99>.

이주연, 이준영.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 ②-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CTS 뉴스』 (2024.12.17.) <https://www.cts.tv/news/view?ncate=all&dpid=324254>.

임보희. "교회, 시니어 청년세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민일보』 (2024. 12. 2) <https://www.kmb.co.kr/article/view.asp?arcid=0020817755>.

"N포세대". 『나무위키』. <https://namu.wiki/w/N%ED%8F%AC%EC%84%B8%8C%80>.